<h1>나 혼자만 레벨업-84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zc09ea1dcd5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84화</p>  
<p>고민은 길지 않았다.</p>  
<p>진우가 말했다.</p>  
<p>"알겠습니다."</p>  
<p>"성 씨 생각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."</p>  
<p>"내일 어디로 가면 되죠?"</p>  
<p>"잉?"</p>  
<p>뜻밖의 대답에 배 팀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'내가 말을 제대로 한 것이 맞나?'</p>  
<p>분명 오늘보다 내일이 더 위험하다고 했을 텐데.</p>  
<p>이야기를 들은 성 씨 표정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깔끔하게 단념하려던 차였다.</p>  
<p>한데 이게 웬일.</p>  
<p>성 씨 덕분에 내일 다시 보충 멤버를 구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생겼다.</p>  
<p>'어디 그뿐이야?'</p>  
<p>혼자서 네다섯 사람 몫을 뚝딱 해치우는 성 씨다.</p>  
<p>그것도 첫날에.</p>  
<p>채굴팀의 에이스, 목진수를 감탄시킨 그의 작업 속도를 목격했을 때의 충격은 정말이지...</p>  
<p>진우가 오겠다는 소리에 배 팀장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해졌다.</p>  
<p>"성 씨, 잘 생각했어!"</p>  
<p>배 팀장이 콧수염을 씰룩거리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진우의 마음이 바뀌기라도 할까 봐 이례적인 조건을 제시했다.</p>  
<p>"내가 담당자랑 상의해서 성 씨 내일 일당은 특별히 두 배로 달라고 할게."</p>  
<p>"그래도 괜찮으세요?"</p>  
<p>"암. 내가 성 씨한테 그 정도도 못 해 줄까 봐?"</p>  
<p>배 팀장은 자신의 가슴을 팡팡 두드렸다.</p>  
<p>"성 씨는 걱정 말고 내일 나오기만 해."</p>  
<p>아무렴.</p>  
<p>4, 5인분을 해내는 일꾼에게 그깟 일당 두 배가 아까울까?</p>  
<p>자신이 사장이었다면 두 배가 아니라 세 배, 아니 앞날을 생각해서 그 이상도 줄 수 있었다.</p>  
<p>'내가 헌터스 사장이 아닌 게 아쉬운 날도 있네.'</p>  
<p>배 팀장은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.</p>  
<p>그때 진우가 물었다.</p>  
<p>"참, 내일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시간이 맞을까요?"</p>  
<p>오늘 아침 유진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.</p>  
<p>-형님, 제가 한번 찾아봬도 되겠습니까?</p>  
<p>초췌한 목소리.</p>  
<p>'이 녀석, 어제까지만 해도 일이 잘됐다고 좋아하더니...?'</p>  
<p>진우는 적잖이 놀랐다.</p>  
<p>하지만 하필 광부 모집에 지원하고 난 뒤였던 터라 약속은 내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.</p>  
<p>배 팀장은 껄껄 웃었다.</p>  
<p>"듣자 하니 내일 던전은 오늘 것보다 규모가 작다고 하드만. 6시 전까지는 충분할 거여."</p>  
<p>오늘도 5시에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가.</p>  
<p>내일은 더 빠르면 빨랐지 늦어지진 않을 듯했다.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그 정도면 충분했다.</p>  
<p>"그럼 내일 뵙겠습니다."</p>  
<p>"그려. 조심히 들어가."</p>  
<p>돌아서는 진우를 보면서 배 팀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'내가 결혼을 했으면 저만한 아들이 있을 것인데.'</p>  
<p>뒷모습도 어쩜 저리 듬직한지.</p>  
<p>세상에 성 씨 같은 신입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?</p>  
<p>배 팀장의 얼굴에서 연신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.</p>  
<p>하지만 웃고 있는 사람은 배 팀장만이 아니었다.</p>  
<p>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진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.</p>  
<p>'내일 공격대가 실수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...'</p>  
<p>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자신의 존재가 공격대나 채굴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.</p>  
<p>달리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.</p>  
<p>아이러니하게도 사실 A급 게이트는 아래 등급 게이트들보다 공략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.</p>  
<p>'일단 협회에서 아무 길드에게나 허가를 내주지 않고.'</p>  
<p>기회를 얻은 길드도 전력을 다해 덤비기 때문이었다.</p>  
<p>하지만.</p>  
<p>'헌터스 길드는 내일 공략에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.'</p>  
<p>하나의 정예 공격대를 두 개로 나눠 두 개의 A급 게이트를 노리다니.</p>  
<p>업계 1위다운 자신감이었다.</p>  
<p>그러나 그만큼 위험천만한 짓이기도 했다.</p>  
<p>'어느 쪽이라도 내가 손해 볼 일은 없어.'</p>  
<p>레이드가 무사히 끝나면 최고의 결과.</p>  
<p>반대로 사고가 터지면 헌터스를 도와주는 대신 상급 마수들을 차지한다.</p>  
<p>'좋아.'</p>  
<p>진우는 미소를 머금은 채로 버스에 올랐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늦은 밤.</p>  
<p>차해인은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다.</p>  
<p>'왜 그 사람만 다른 걸까?'</p>  
<p>보스방에서 만났던 남자 생각에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.</p>  
<p>능력을 각성하고 2년 동안 많은 헌터들을 만나 왔지만 한 번도 예외는 없었다.</p>  
<p>헌터들, 정확히는 각성자들에게 다가가면 불쾌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.</p>  
<p>처음엔 병인가 싶어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.</p>  
<p>하지만 차도가 없었다.</p>  
<p>그때 상담을 나눴던 한 의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털어놓았다.</p>  
<p>-혹시 차 헌터님은 후각으로 마력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요?</p>  
<p>설득력 있는 추측이었다.</p>  
<p>등급이 높은 헌터일수록 악취는 심했고, 등급이 낮은 헌터일수록 악취가 덜했다. 당연히 일반인에게선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'...좋은 냄새가 났던 건 그 사람이 처음이야.'</p>  
<p>오늘 일을 떠올리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.</p>  
<p>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져서 레이드가 끝나자마자 협회 사이트에 들러 남자의 신원을 조회했었다.</p>  
<p>E급.</p>  
<p>성진우.</p>  
<p>헌터 자격증에서 봤던 남자의 정보가 그대로 나와 있었다.</p>  
<p>'연락처가 없네...'</p>  
<p>연락처를 알아내서 뭘 어떻게 할 생각이었을까?</p>  
<p>협회 사이트에서 더 이상 알아낼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, 자신도 모르게 영입담당부 부장 조명기의 번호를 누르고 말았다.</p>  
<p>-아니, 차 헌터님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?</p>  
<p>그때 시간이 벌써 새벽 1시.</p>  
<p>발신인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여성 S급 헌터이자, 자신이 속한 헌터스 길드의 부사장이 아니었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전화였다.</p>  
<p>잠이 덜 깬 조명기의 목소리에 괜한 짓을 했나 하는 후회도 잠시.</p>  
<p>차해인은 어렵게 입술을 뗐다.</p>  
<p>"성진우 헌터에 대해 좀 알아봐 줄 수 있나요?"</p>  
<p>-예? 설마 협회 소속이었던 E급 헌터 말씀이십니까?</p>  
<p>차해인은 깜짝 놀랐다.</p>  
<p>조명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길드에서 영입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.</p>  
<p>그런 사람이 어떻게 E급 헌터의 이름을 아는 걸까?</p>  
<p>"아는 사람인가요?"</p>  
<p>-아, 그게... 어제 최 대표님께서 같은 부탁을 하셨거든요.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라고요.</p>  
<p>"최 대표님이요?"</p>  
<p>-네.</p>  
<p>"무슨 일인지 아시나요?"</p>  
<p>-글쎄요. 저도 그것까진...</p>  
<p>"...그래서 어떻게 됐나요?"</p>  
<p>수화기 너머에서 한숨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.</p>  
<p>-저도 알아본다고 애를 써 봤는데, 협회에서 락을 걸어 놨더라고요. 최상급 헌터도 아니고 일반 헌터의 정보를 막아 놓은 경우는 저도 처음 봅니다.</p>  
<p>"아..."</p>  
<p>-그런데 차 헌터님은 무슨 일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까? 제가 도와 드릴 일이 있을까요?</p>  
<p>"아니에요, 늦은 시간에 죄송했습니다."</p>  
<p>딸깍.</p>  
<p>그게 3시간 전의 대화였다.</p>  
<p>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용기를 냈는데, 그랬다가 오히려 궁금한 점만 더 늘었다.</p>  
<p>헌터스의 대표가 정체를 알고 싶어 하고, 협회가 정보를 숨기려 드는 E급 헌터라.</p>  
<p>'분명 뭔가 있어.'</p>  
<p>아니, 제발 뭔가가 있었으면...</p>  
<p>간절히 바랐다.</p>  
<p>어쩌면 2년 전, 능력을 각성했던 21살부터 지금까지 줄곧 자신을 괴롭혀 온 이 특이체질의 비밀을 풀어 줄 단서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.</p>  
<p>'그 사람, 다시 만날 수 있을까?'</p>  
<p>혹시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?</p>  
<p>막연한 불안감이 들었다.</p>  
<p>그러나 다행히 그때 차해인은 성진우의 안전모를 떠올렸다.</p>  
<p>그의 안전모와 작업복에 헌터스 길드의 마크가 찍혀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났다.</p>  
<p>'그러고 보니 채굴팀에 있었지.'</p>  
<p>본인이 속한 A 공략팀과 달리 채굴팀은 오늘도 작업이 있었다.</p>  
<p>만약 성진우가 아직도 채굴팀을 떠나지 않았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다.</p>  
<p>'한번 가 보자.'</p>  
<p>길드의 부사장인 자신이 레이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.</p>  
<p>'자연스럽게 가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오는 거야.'</p>  
<p>어째서일까?</p>  
<p>그 수상한 헌터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.</p>  
<p>'그러려면 좀 자 둬야 해.'</p>  
<p>오늘의 일정을 위해 차해인은 감기지 않는 눈을 억지로 붙였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동도 트기 전.</p>  
<p>진우는 새벽같이 약속 장소로 출발했다.</p>  
<p>레이드 도중 합류해서 여유가 있었던 어제와 다른 점이었다.</p>  
<p>'괜한 걱정이었나?'</p>  
<p>너무 일찍 나온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.</p>  
<p>게이트 앞에는 이미 많은 헌터들이 도착해 있었다.</p>  
<p>"어어? 성 씨! 성 씨!"</p>  
<p>가장 먼저 배윤석 팀장이 알은척 했다.</p>  
<p>"성 씨 왔네."</p>  
<p>"여어, 성 씨!"</p>  
<p>다른 헌터들도 어제와 다르게 눈인사를 보내거나 가슴께까지 손을 들어 진우를 반겼다.</p>  
<p>한 사람 한 사람 일손이 중요한 일이다 보니 솜씨 좋은 동료는 언제든 환영이었다.</p>  
<p>채굴팀 헌터들의 표정에서 반가움이 드러났다.</p>  
<p>'뭔가... 어색하네.'</p>  
<p>E급 헌터가 되고 나서 항상 박대만 받아오다가 처음으로 환대를 받으니 얼떨떨했다.</p>  
<p>그래도 그들의 솔직한 반응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에 답했다.</p>  
<p>"하나, 둘, 서이."</p>  
<p>팀원들의 수를 헤아려 보던 배 팀장이 쪽지에 숫자를 적었다.</p>  
<p>"열여덟, 열아홉. 거진 다 왔네."</p>  
<p>이만하면 충분했다.</p>  
<p>뭐, 오늘 같은 날은 한두 사람쯤 빠져도 괜찮았다.</p>  
<p>'에이스가 둘이나 있으니까.'</p>  
<p>목진수, 성진우와 눈이 마주친 배 팀장이 배시시 웃자 목진수는 시선을 피했고, 성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그때.</p>  
<p>"저기 배 팀장님."</p>  
<p>"아이, 깜짝이야."</p>  
<p>갑자기 옆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에 배 팀장이 어깨를 움찔하고 말았다.</p>  
<p>기척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실력이 뛰어나단 증거.</p>  
<p>아니나 다를까.</p>  
<p>배 팀장의 원망스러운 시선을 받고 있는 이는 이번 공격대의 리더 손기훈이었다.</p>  
<p>"아이고- 간 떨어지겠습니다, 손 헌터님."</p>  
<p>"죄송합니다. 던전에서 하는 버릇이 습관이 돼서 그만."</p>  
<p>겸연쩍게 웃는 손기훈.</p>  
<p>손기훈 뒤에서 수거팀 팀장이 불쑥 튀어나왔다.</p>  
<p>"영감이 주책은..."</p>  
<p>"얼레? 자네까지? 채굴팀 모인 데 무슨 일이여?"</p>  
<p>"무슨 일이긴 무슨 일이야. 볼일이 있으니까 왔지."</p>  
<p>배 팀장은 의아한 눈빛으로 손기훈을 바라보았다.</p>  
<p>손기훈이 채굴팀 헌터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.</p>  
<p>"저희 짐을 들어 주실 분이 안 와서요. 아무래도 채굴팀 한 분을 빌려야겠습니다."</p>  
<p>"잉?"</p>  
<p>배 팀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"힘 좋고 짐 잘 나르는 수거팀이 있는데 왜 우리 팀에서...?"</p>  
<p>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수거팀 팀장이 발끈했다.</p>  
<p>"어제 우리 애들 저녁도 못 먹고 3시간 내내 잔업해서 겨우 작업 끝냈어. 그런데 이제는 짐꾼까지 뽑아 가라고?"</p>  
<p>어제 수거팀이 저녁도 못 먹고 잔업을 해야 했던 이유는 하나.</p>  
<p>채굴팀 작업이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이다.</p>  
<p>'허긴 평소 같았으면 7시까진 해야 했을 일을 성 씨 덕에 5시 좀 넘어서 끝내 버렸으니...'</p>  
<p>수거팀 팀장이 도끼눈을 뜨고 목에 핏대를 세우자 배 팀장은 할 말이 없어졌다.</p>  
<p>설명은 이쯤 하면 됐다고 생각했는지, 손기훈이 채굴팀 헌터들에게 물었다.</p>  
<p>"혹시 공격대와 같이 가실 분 있습니까? 위험수당은 레이드가 끝나는 즉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."</p>  
<p>"..."</p>  
<p>손기훈이 애타는 눈빛을 이리저리 보내 봤지만 아무도 나서려는 사람은 없었다.</p>  
<p>다들 발끝을 보거나 하늘을 바라보며 시선을 피했다.</p>  
<p>당연히 그럴 수밖에.</p>  
<p>'돈 몇 푼에 목숨을 걸 일 있나?'</p>  
<p>'때려 죽어도 못하지...'</p>  
<p>채굴팀 헌터들은 제일 높은 등급이 C급.</p>  
<p>대다수가 D급이었다.</p>  
<p>심지어 일부는 E급도 있었다.</p>  
<p>그런데 지금 손기훈이 데려가려는 곳은 최상위로 분류되는 A급 던전이었다.</p>  
<p>B급 던전이라도 해도 갈까 말까한데 무려 A급이라니?</p>  
<p>스쳐도 죽는다.</p>  
<p>아니, 발만 한번 헛디뎌도 목숨을 잃는다.</p>  
<p>하급 헌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.</p>  
<p>짐꾼이 하는 일이라고 해 봐야 공격대 멤버들의 짐을 들어 주는 게 다였지만... 채굴 작업에 비해 너무 위험했다.</p>  
<p>"아무도... 안 계십니까?"</p>  
<p>손기훈의 표정이 점점 난처해졌다.</p>  
<p>다시 짐꾼을 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.</p>  
<p>까딱하다가는 반나절에서 한나절이나, 운 없으면 하루를 그냥 날릴 가능성도 있었다.</p>  
<p>'이거 큰일인데.'</p>  
<p>그러다 한 명의 헌터와 눈이 마주쳤다.</p>  
<p>'어?'</p>  
<p>옆의 헌터들과 달리 그는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였다.</p>  
<p>'흠...'</p>  
<p>손기훈이 자신을 바라보는 동안 진우도 손기훈의 면면을 찬찬히 살폈다.</p>  
<p>'탱커치고는 샤프한데?'</p>  
<p>리더는 대개 탱커가 맡는 것이 상식.</p>  
<p>손기훈은 여타 랭커들에 비해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다.</p>  
<p>키도 훤칠하게 커서 헌터라기보다는 농구 선수에 가까운 이미지였다.</p>  
<p>'...'</p>  
<p>손기훈을 응시하던 진우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갔다.</p>  
<p>"후아-"</p>  
<p>그제야 손기훈이 참았던 숨을 토해 냈다.</p>  
<p>왜일까?</p>  
<p>방금 숨을 안 쉬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을 정도로 몸이 경직되어 있었다.</p>  
<p>영문 모를 일이었다.</p>  
<p>'내가 리더를 맡는 첫 레이드라서 너무 긴장했나?'</p>  
<p>항상 부탱커로만 레이드에 참여해왔다.</p>  
<p>그래서 오늘 기회는 그에게 더 특별했다.</p>  
<p>이런 날 실수를 할 수는 없지.</p>  
<p>기역 자로 엎드려서 가쁘게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던 손기훈이 상체를 들었다.</p>  
<p>웅성웅성.</p>  
<p>자신의 추태 때문인지 주위가 소란스러웠다.</p>  
<p>그러나 곧 자신 때문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.</p>  
<p>채굴팀 헌터들 쪽으로 돌아간 손기훈의 시야에 하늘로 향한 손 하나가 들어왔다.</p>  
<p>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짐꾼 지원자였다.</p>  
<p>손기훈의 표정이 밝아졌다.</p>  
<p>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모두의 시선이 진우에게 모였다.</p>  
<p>"제가 하겠습니다."</p>  
<p>=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